

INCHEON

4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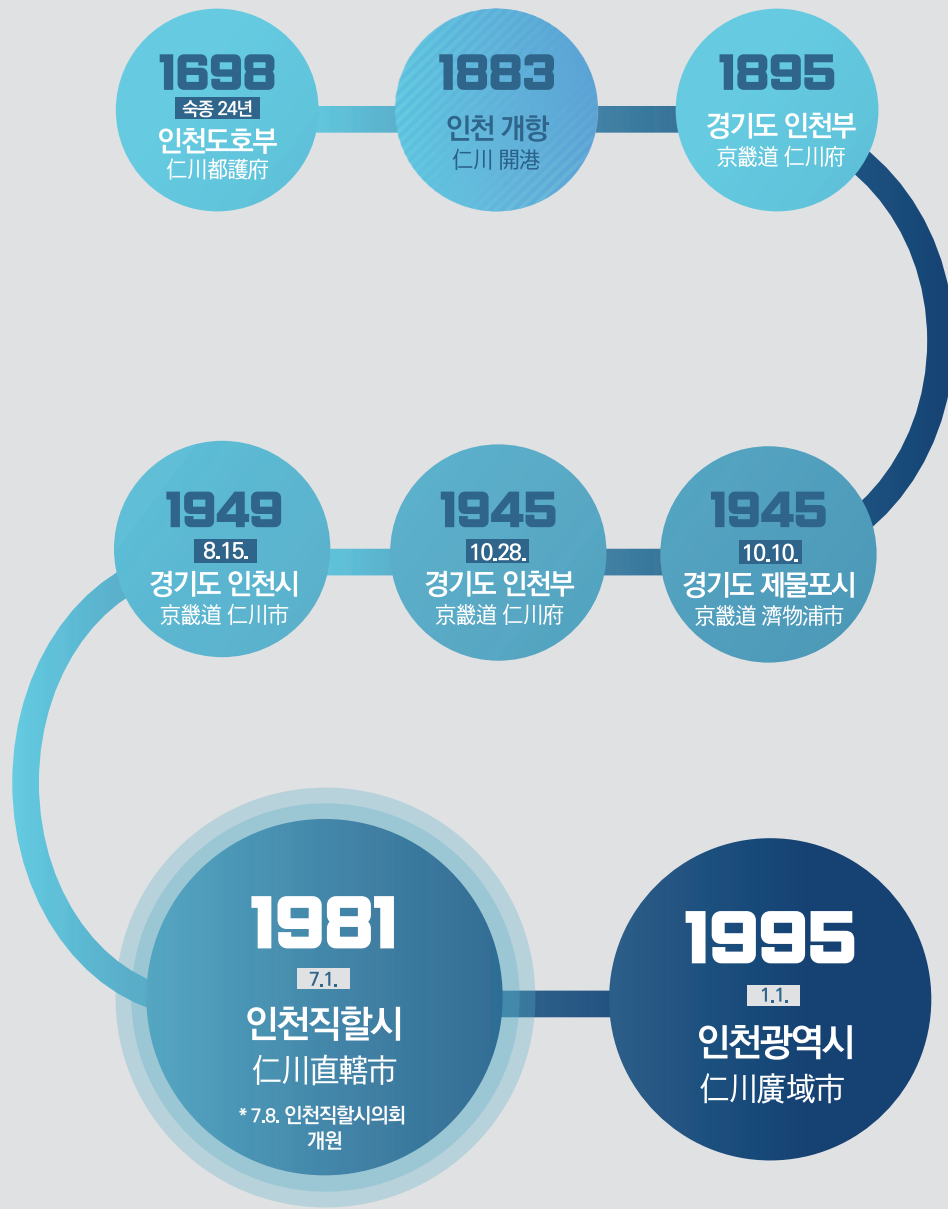
인천독립 40년



데이터로 보는 인천의 변화

- I 직할시 승격의 배경과 의미
- II 행정
- III 지역경제
- IV 교통
- V 환경·안전
- VI 문화
- VII 보건·복지
- VIII 교육

직할시 승격의 배경과 의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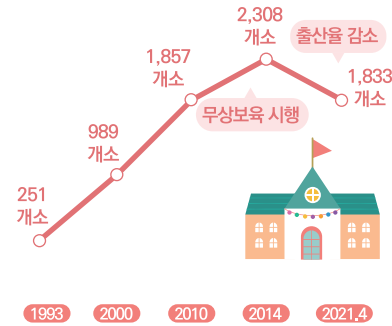
교육

보육과 교육 인프라가 크게 향상되어
1981년 55개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수는
2020년 253개로 증가, 학급당 학생 수는 22.7명까지
감소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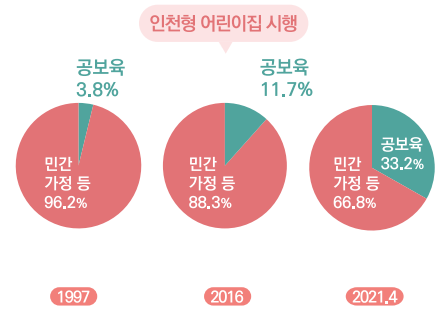


보육인프라 확대

어린이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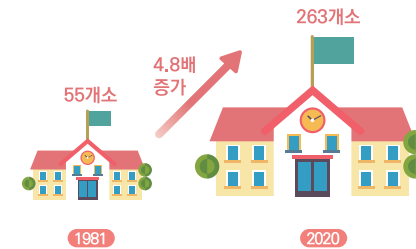


공보육 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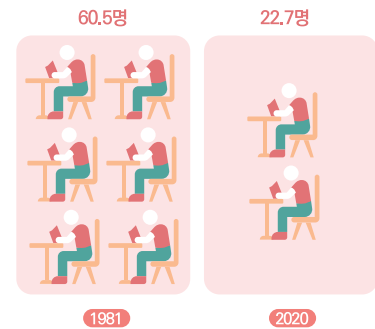


초등학교 수 증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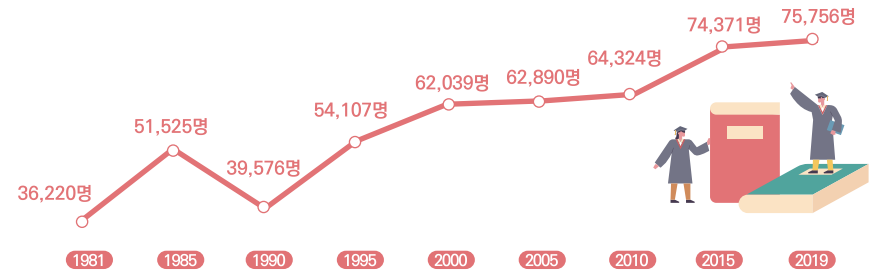
초등학교 수



학급당 학생 수



고등교육 학생 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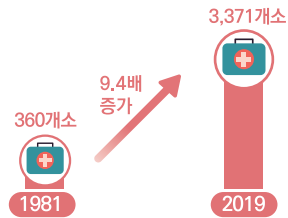
보건·복지

직할시 승격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 인천은 의료 부문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며 보건·복지 분야 서비스 제공기반을 갖추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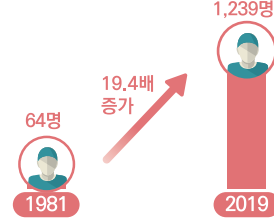


의료기관과 의료인 수 증가

의료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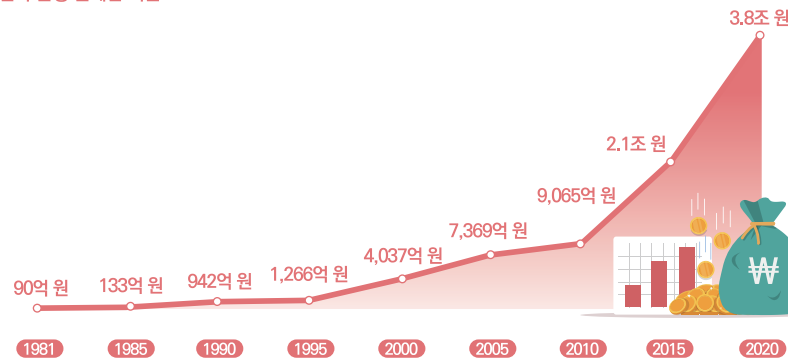


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



사회복지 예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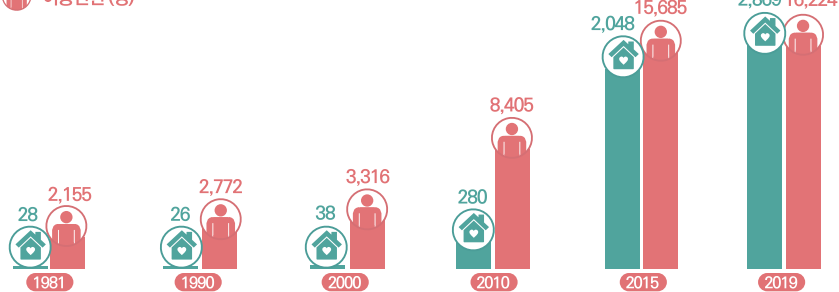
*인천시 본청 본예산 기준



사회복지시설 수 증가와 이용인원 증가

🏠 사회복지시설 수 (개소)

👤 이용인원 (명)



4 인천독립 40년

주변에서 중심으로

- 경기도에 속해있던 인천은 1981년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 직접 관할
- 산업기반 시설과 항만 정비, 인천공항 건설로 바다와 하늘을 잇는 도시로 성장

의존에서 독립으로

- 지방세 수입이 인천시민만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재정독립도시 기반 마련
-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인프라 구축

양적 성장에서 질적 변화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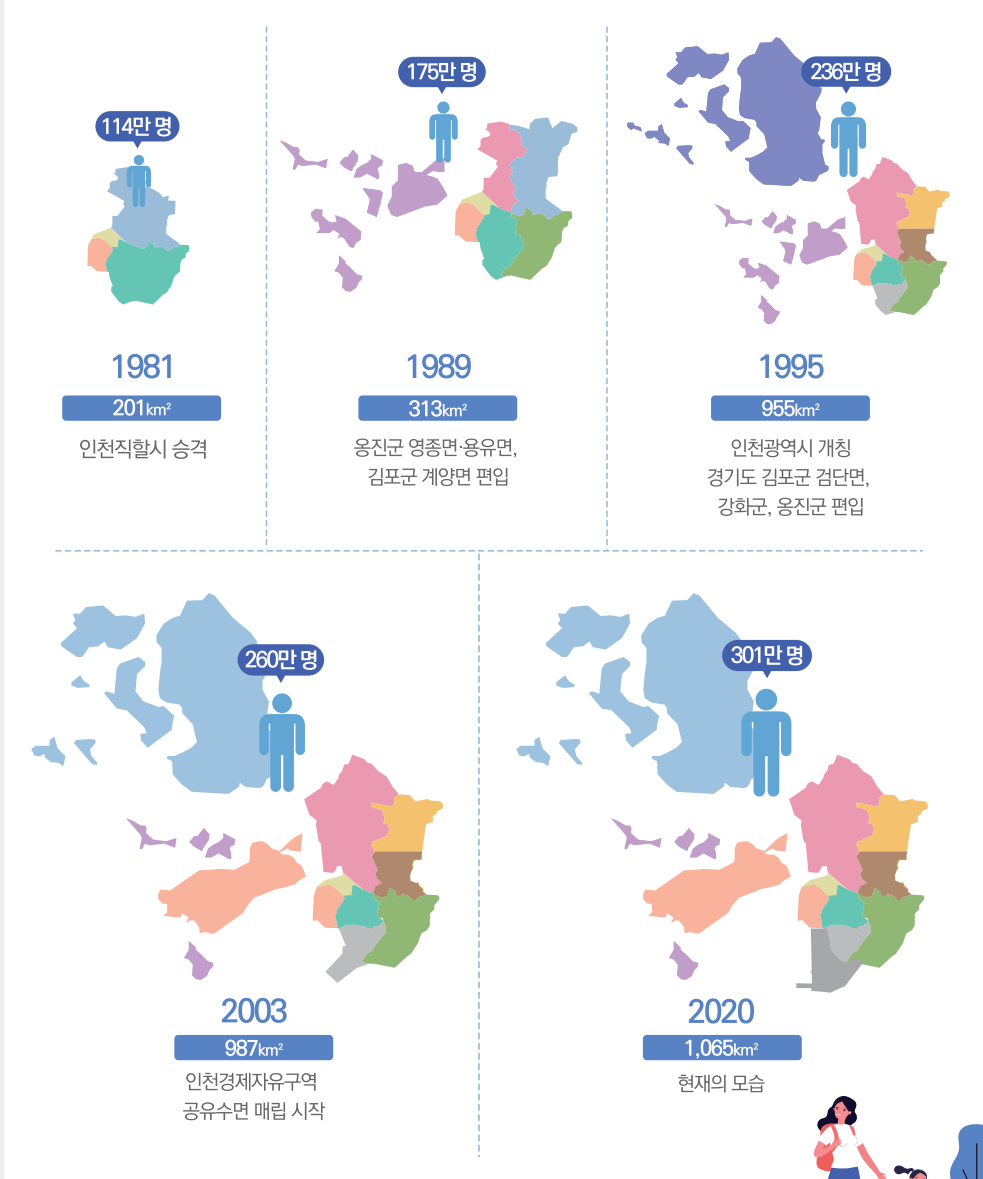
- 승격 이전 100만 도시였던 인천은 양적 성장의 기반 위에 인천시민 삶의 질 제고 노력
-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 대응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및 교육 정책 수립

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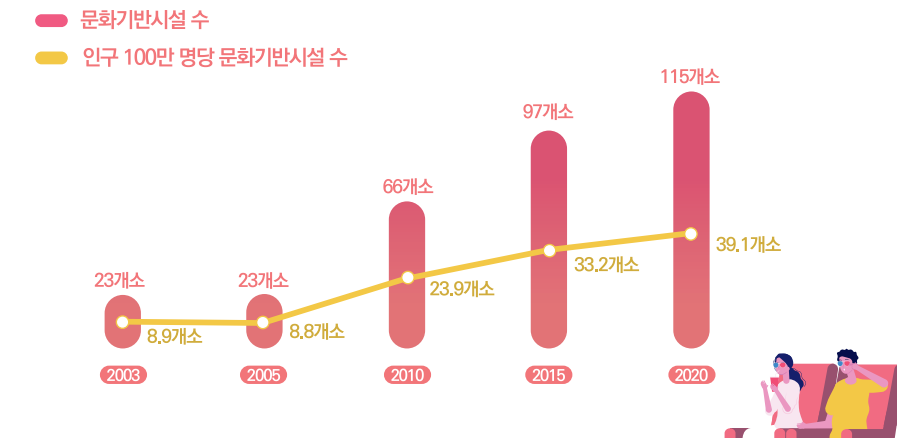
직할시 승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 규모로
 1981년 114만 명, 광역시로 승격된 1995년 200만 명,
 2020년에는 전국 세 번째로 300만 명이 됨
 면적은 1981년 201km² 에서 2020년 1,065km² 로
 특·광역시 중 가장 넓은 도시가 됨



인구증가와 면적 확대



문화기반시설 수 증가



국제스포츠팀·프로스포츠팀 역사



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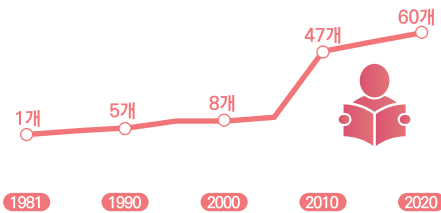
직할시 승격은 인천시 문화 독립의 시작점으로 1982년 인천직할시 문화회관, 1994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였으며, 2004년에는 인천문화재단 설립 인천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2003년 23개소에서 2019년 115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

주요 문화시설 개관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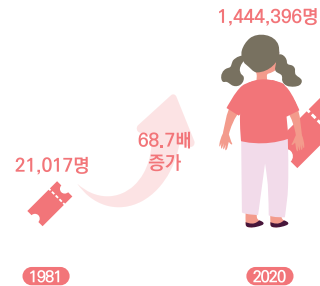


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 욕구 대응

공공도서관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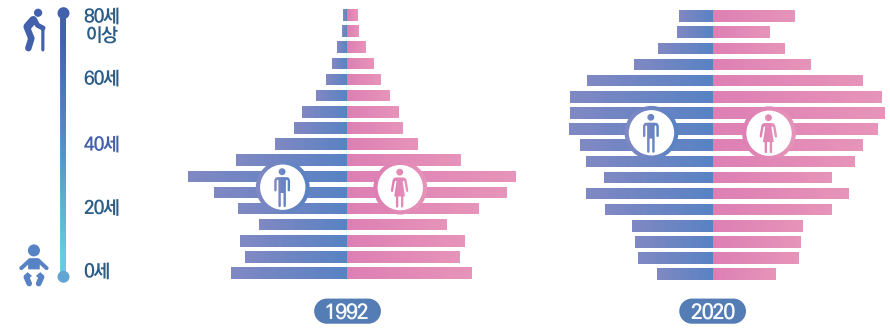


박물관 입장자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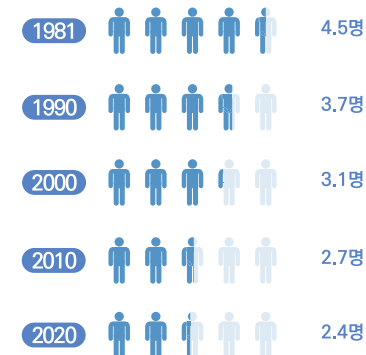
연령과 성별로 본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

단위: 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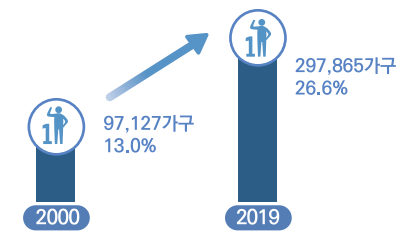


세대당 인구 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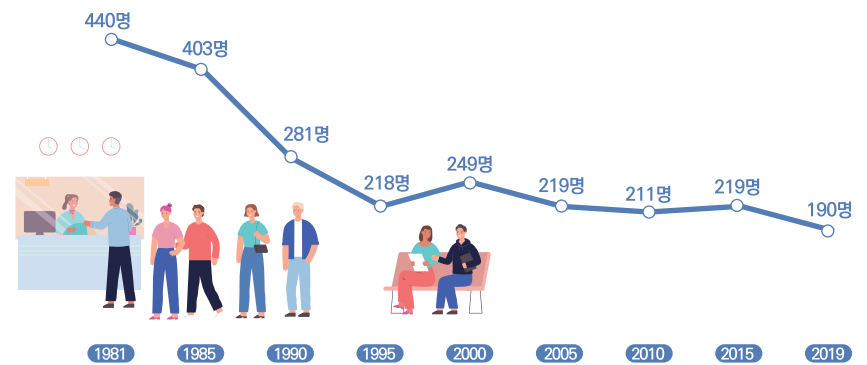
세대당 인구 수



1인 가구



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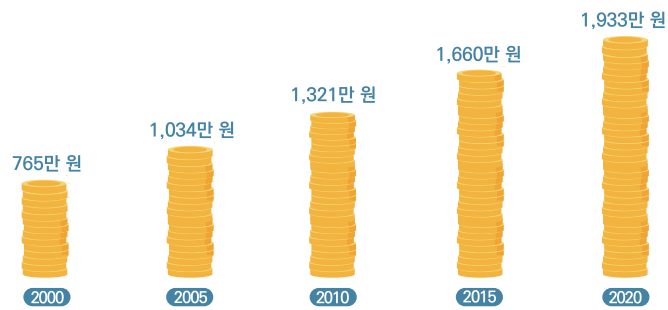


지역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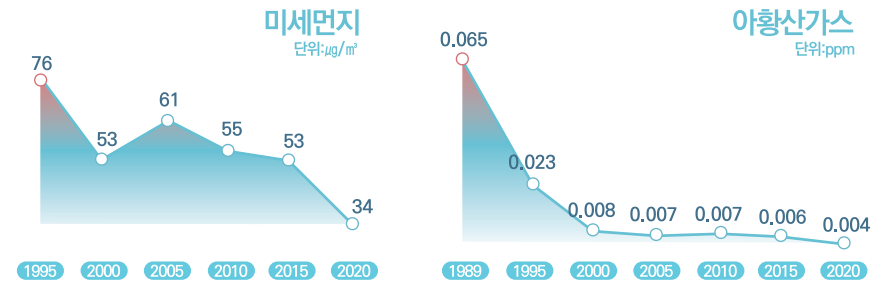
직할시 승격 이후, 1인당 개인소득이 증가하고
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으로 전환되었으며
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
지역경제 규모의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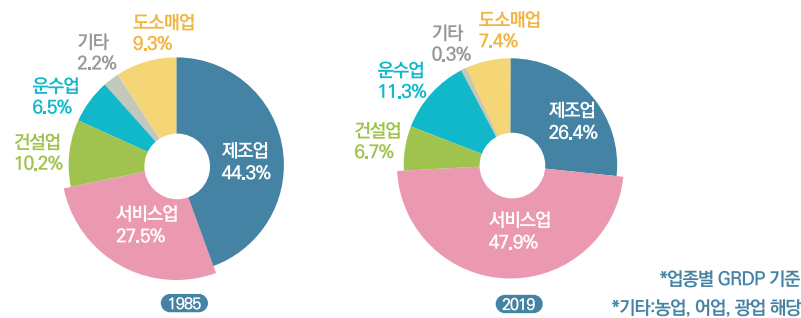
1인당 개인소득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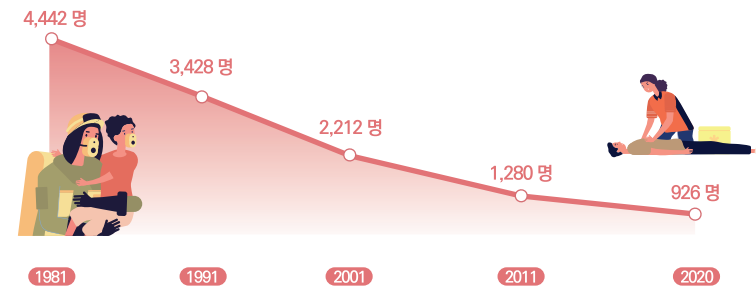
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대기오염도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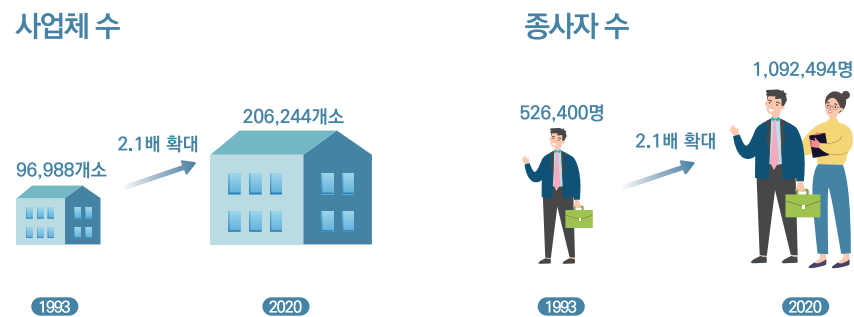
제조업 감소와 서비스업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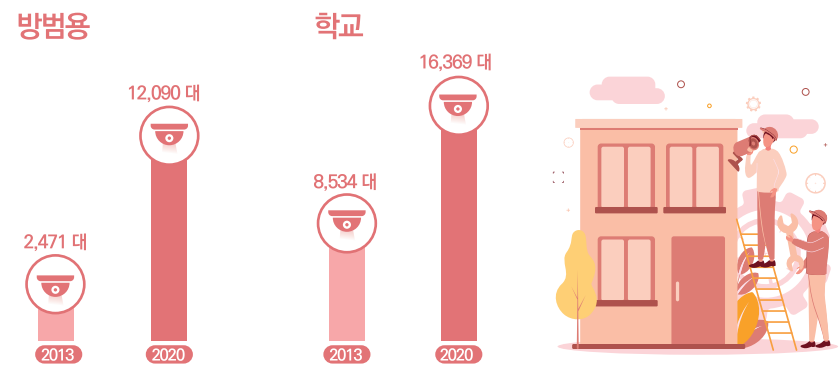
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감소



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



CCTV 증가로 안전망 확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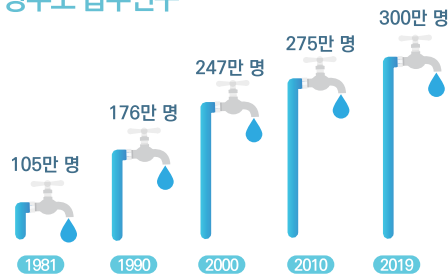
환경·안전

전통적인 산업도시이자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육성해 온 인천은 공해,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겪음
최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,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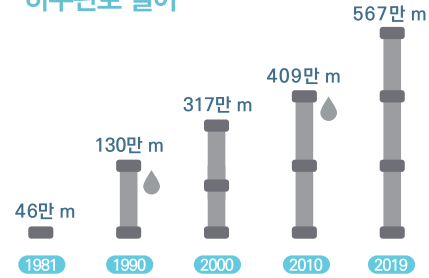


상·하수도 보급 확대

상수도 급수인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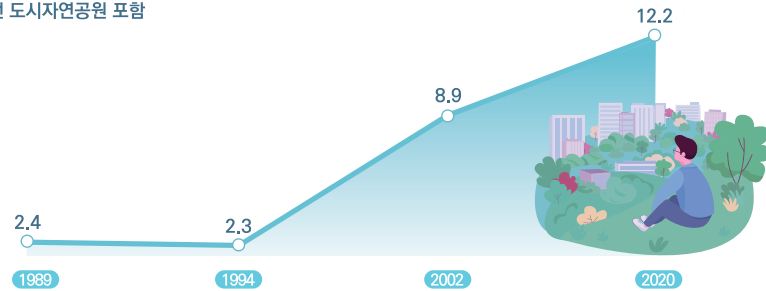
하수관로 길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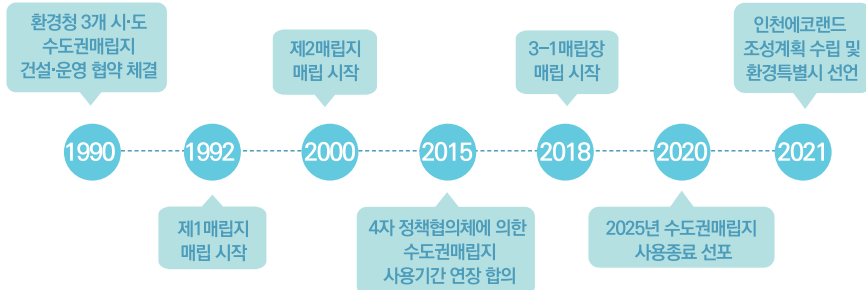
1인당 공원 조성면적 증가

단위: ㎡/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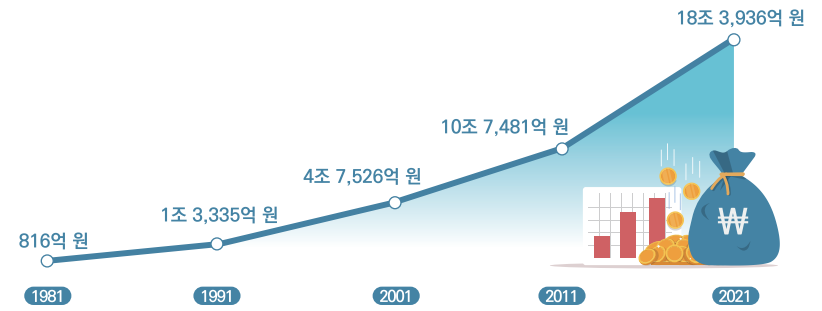
*1994년 이전 도시자연공원 포함



수도권매립지 연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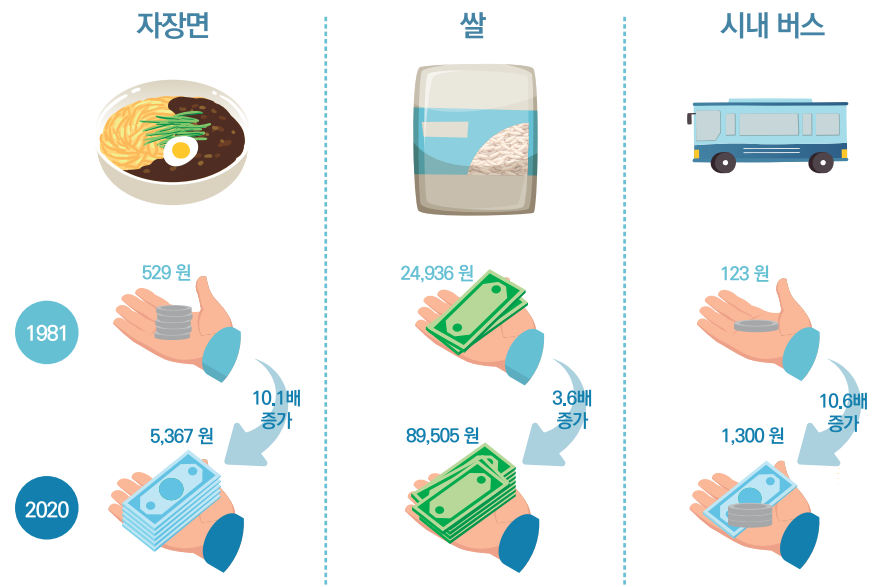
직할시 승격 이후 예산 규모 급증



지역경제 성장에 따른 수출액 증가



소비자 물가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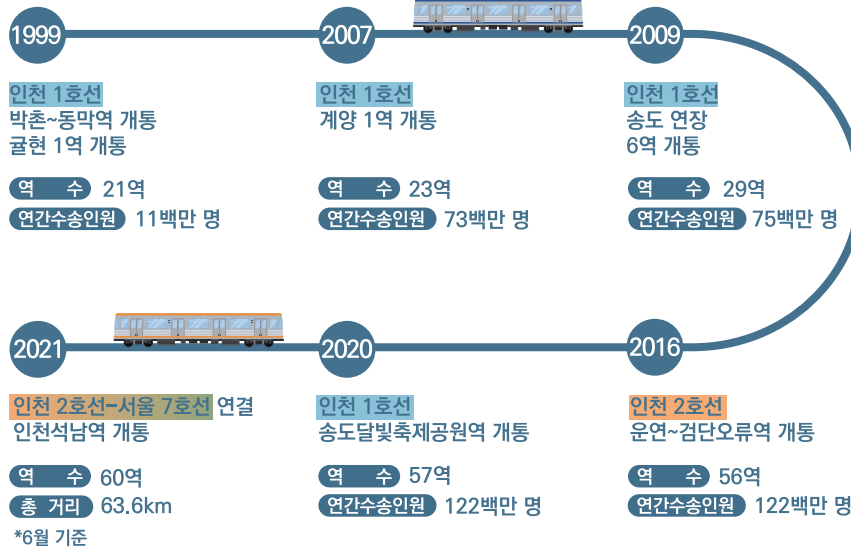


교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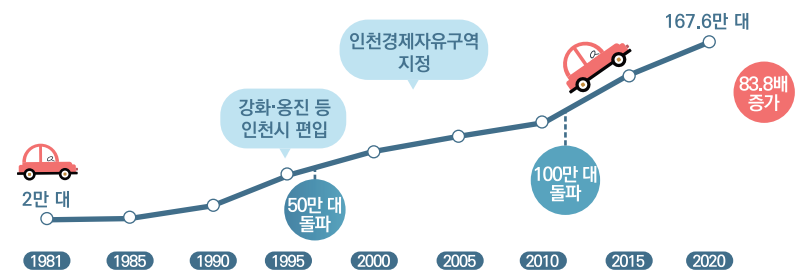
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며
인구 유입이 대폭 증가하여 자동차 등록대수,
주차장 수 등 교통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옴
1999년 인천 1호선을 시작으로
2016년 인천 2호선이 개통되면서
2020년 철도 길이가 140km까지 증가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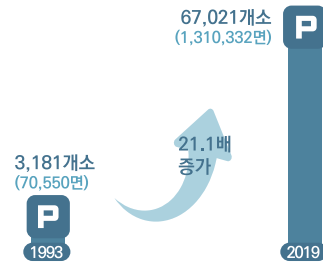
인천 도시철도 역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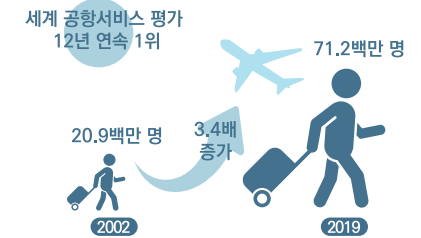
자동차 등록대수 증가



주차장 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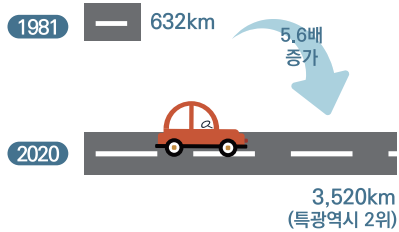


인천공항 이용객 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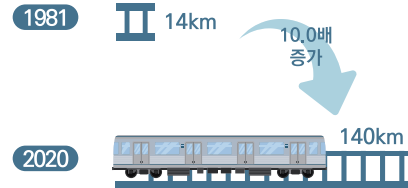


교통 인프라 확충

도로 길이



철도 길이



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

